

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요한복음의 처음(1:29-91)과 마지막(20:30-31)에 제자들에 의해 제기된다. 그러나 이런 신학적 입장이 기존 체제와 거기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역으로 혹은 우스꽝스러운 미친 자의 변론으로 여겨진다. 오늘은 그 중의 하이라이트—인신공격으로(8:41, 48-52).

A. 간음한 여인

1. 문학적 구성

- 고대 사본에는 없다. [요 7:53-8:11]. 다른 위치: 요한복음의 끝, 누가복음 21:38 이후.
-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소.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주요 등장인물(20 번). 서기관은 여기 한 번 뿐. 돌로 치라(요 8:5, 59)

2. 문학적 의도

- 정죄(κατακρίνω, 요 8:10-11)와 판단/심판(κρίνω)=> 요 (7:14, 51; 8:15-16, 26, 50). 우리는 간음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. 아마도 예수 시험하고(8:6) “무시함”(8:49)이 목적
- 더 큰 의도에서는 예수와 긴장, 변론 등 연속 (5 장, 7-10 장.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. Cf. 6 장은 갈릴리에서=> 6 장과 5 장의 위치바뀜.)
-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어 예수의 담화,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함이 요한복음의 특징. 예를 들어, 3 장(니고데모), 4 장(사마리아여인), 5 장(베데스다 못의 병자)

B. 예수의 권위

1. 세상의 빛

- 성경에서 빛은 신의 임재를 상징=> 시 27:1 (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)
- 구원을 상징=> 마 4:16 <<사 9:2 (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...). 빛의 자녀(요 12:36)
- 예수가 빛이라는 상징=> 어둠(세상)과 구별.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
 - 사람들은(바리새인) 예수가 어디서 오며(원천), 어디로 가는지(운명)를 모른다. 곧 그의 가르침과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.
 -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간다(21절). 가는 길, 삶이 다름=> 너희는 아래서(세상으로부터) 낳고, 나는 위에서(하느님으로부터) 나왔다.

2. 진리와 자유함

- 아브라함과 세상의 가치
 - 세상의 가치는 소속감/성취감=>종됨. 믿는 것에 매임 (초신자=>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, 31-33절).
 - 진리의 가치는 자유함. 믿는 것에서 자유함(beyond). 매이지 않음. 벗어남(separation)과의 차이는? 매임과 벗어남은 둘 다 선택의 문제(either-or). 진정한 벗어남은 매이지 않음—매이지 않음에 매임—이 아니라 자유함=> 자유함은 포괄적(both-and).
-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은
 -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을 상징. 기존가치관.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? 행복? 그렇다면 예수는 그 자체다.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표현.
 - 돌로 치려함=> 간음한 여인 이야기. 교훈은 세상의 잣대—기존의 가치관—으로 판단하지 말고 (살지 말고),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라. 8장의 등장인물들은 (요 8:31-33 초신자를 포함) 이것에 실패.

----- 생각해 보기

1. 자유함과 관련해 아들과 종의 비유(요 8:35)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. (q. 주인과 종업원)
2. 요 8:37.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“행하느니라”(RSV) 혹은 “행하라”(NRSV). 어떻게 읽나?